

2006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표제 회의가 2006.12.14-15간 주재국 정부 및 세계은행(WB) 주관하에 30개국, 16개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바, 동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

I. 핵심 요지

1. 주요 결과

■ 금번회의시 베측에서는 원조공여국 역사상 최초로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기획투자부(MPI)장관등 5개부처 장관 및 관련기관 차관등이 참석·발표를 통해 베트남으로서는 금년도에 '06-' 10 사회·경제 개발계획(SEDPA)상 2006년도 주요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경제성장률 8.1% 등)하면서 APEC의

성공적 개최 및 WTO 가입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함

- 또한, 금년도에는 기업법·투자법·환경보호법·ODA의 효율적 활용 관련 법령 등 각종 규정이 제정·발효되는 등 경제·사회·환경·사법분야에서의 개혁 노력을 설명함.

- 특히 베측은 ODA의 효율적 활용 및 운용을 위해 Decree 131가 제정('06.12.7발효)되었다고 하면서 ODA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권한이양(Decentralization), 절차간소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제고,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강화 등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함.

■ 공여국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2005-06년간 베트남 정부가 제반 분야에서의 법률 정비

를 통한 각종 개혁 노력을 평가하면서 경제 성장률(8.1%) 및 빈곤률(19%)감소 등 금년도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음을 평가함.

- 또한 각국은 베트남 정부가 금년도 APEC 의 성공적 개최 및 150번째 WTO 가입국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의 향후 도약을 기대한다고 표명

- 한편, 각국은 베트남이 경제의 양적 성장 및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도 아울러 고려해야할 시점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2006-2010 사회경제 개발계획(SEDPA)상의 사회통합, 환경보호, 거버넌스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권고

■ 2007년도 공여국들의 대 베트남 지원서약(pledge) 총액은 44.5억불로 전년 대비(37.5억불) 18.7%(약 7억불)증가함.

- 일본(8.9억불), 프랑스(3.7억불), 한국(1.1억불) 및 ADB(11.4억불), WB(세계은행, 8.9억불) 등 서약(상세내역 별첨 참조)

2. 관찰 및 평가

■ 금년도에는 지난 6월 중간연도 원조공여국 회의시 부총리겸 외교장관이 최초 참석하는데 이어 금번회의시에는 총리가 원조공여국회의 역사상 최초로 참석한 바, 이는 베트남의 사회·경제발전에 있어 ODA에 대한 매우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재국은 당초 계획했던 회의일자(12.13-14)를 변경하면서까지 총리의 참석을 추진

■ 또한 금년도에는 지난 4월 제10차 전당대회시 승인한 2006-2010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첫째로서 경제성장률 및 빈곤감소를 등 각종 목표치가 달성되었으며

- 대내적으로는 제반분야에서의 개혁 노력을 통한 각종 규정의 정비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 대외적으로는 APEC의 성공적 개최 및 WTO 가입을 통한 지역적·국제적 통합에 진일보한 바,

- 금년도에는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가히 베트남의 해(Year of Vietnam)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이에 원조공여국들은 총 44.5억불의 지원서약을 하여 베트남 원조공여국회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이는 원조공여국들이 베측의 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서약액은 주재국의 기대에도 부응한 것으로 사료됨.

* 주재국 Khiem 부총리겸 외교부장관은 지난 12.13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시 향후 5년간 사회·경제개발을 위해 약1,400억불이 필요한 바, 이중 1/3(5년간 약470억불)을

외부로부터 유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조 공여국들 및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 금번 원조공여국들의 서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양자 차원에서 일본·프랑스에 이어 제3위의 원조공여국이 되었으며(작년도 4위)
- 중국의 서약불참(작년도 2억서약, 3위) 및 ADB의 서약액 증가(작년도 5.4억불에서 금년도 11.4억불)가 주목되는 바
- 우리로서는 동 배경 등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베트남 ODA 계획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가능시 ADB와의 co-financing 사업 추진도 고려)

- 한편, 주재국 정부가 금년도에 각종 규정을 많이 정비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해와 전문성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주재국 정부의 각 규정의 이행 지침 작성 과정시 원조공여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상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 과정에서 우리측 적극 참여 필요)
- 특히 일부 공여국들은 새로 제정된 ODA 활용에 대한 Decree 131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나, 지방정부·일선 행정기관 등 실제 ODA 사업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 우리는「중부지역 병원건립사업」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동 법률 시행으로 인한 정책변화 및 개별 사업에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II. 의제별 세부 논의내용

1. 개회식

- 개회식에는 주재국의 Nguyen Tan Dung 총리, Vo Hong Phuc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5개부처 장관, Klaus Rohland Worldbank 베트남 Country Director 등이 참석함.
- 폐회식에는 Pham Gia Khiem 부총리겸 외교장관이 참석
- Nguyen Tan Dung 총리는 개막연설을 통해 베트남은 올해 WTO에 가입하였고,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당초 목표했던 7.5%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05년 22%에 이르던 빈곤율을 19%까지 감소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설명하고, 이는 도이 모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의 결과라고 평가함.
- 또한 2006~2010 SEDP가 마무리되는

2010년도에는 1인당 GDP 1,100USD를 달성하고 2020년도에는 명실상부한 「공업 국가」(Industrialized Country)로 발돋움한다는 경제개발 목표를 소개

-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조언 및 지지를 당부

2. 경제 성장과 기업환경

가. 베헤 설명요지

- 베헤은 1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01~2005)의 결과 베트남 경제가 동기간중 연평균 7.5%의 GDP 성장 및 750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공기업민영화, 빈곤계층 감소 등 경제의 질적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음.
- 2차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을 통해 2006~2010년간 1인당 GDP 1,100불 달성, 빈곤인구 10% 감소, 도시지역 청정수 공급률 확대(95%) 등 경제 및 사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할 계획임을 소개함.
- 또한 재무부, 교통부,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 금융·은행·공기업 등 분야별 개혁 계획 및 베트남의 인적자원 개발 계획을

발표함.

나. 주요 토의 내용

- 대다수 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지난 5년간 베트남의 경제적 성과는 베트남 정부 및 민간의 개혁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부패 척결 등 행정개혁 및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배양, 사법부 독립, 소수자 보호, HIV/AIDS 대책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 또한 2006년 베트남의 WTO 가입, APEC 정상회의 개최, UN 안정보장 이사회 가입 등은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 특히 WTO 가입은 베트남 경제에 큰 기회와 함께 시장 경제 확립이라는 과제를 주고 있는바 WTO 가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입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입조건 이행이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함.
- 우리 대표는 발언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험이 베트남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유용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출신용의 공급이 필수적인바 한국은 2005년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베트남 개발은행의 설립에 기여한 바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동 은행을 통해 베트남내 수출신용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3.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경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HIV/AIDS 확산방지, 사회 안전망 구축,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베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이들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특히, 베측은 이들 사회적 과제 수행을 위해 HIV/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사회보험제도 도입 등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진행중임을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아울러, 2005년 11월이후 국내에서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사례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UN, WB, EU 및 베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National Work Plan이 진행중임을 소개함.

나. 주요 토의내용

- 대다수의 공여국들은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성장의 질 및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대표는 빈곤층이 많은 산간지역 및 소수민족(Ethnic minority)에 대한 베측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소수민족 전통문화의 보존은 사회의 활력 유지를 위해 중요함을 언급
- 아울러 UN Resident Coordinator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과 환경 및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향후 ODA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언급함.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는 경제발전의 필수요소이므로, 향후 HIV/AIDS 확산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임을 소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조함.

- 우리 대표는 지난 6월 중간연도 원조공여국 회의시 SEDP의 세 축(three pillars)중 하나인 환경분야에 대한 2006-2010간 투자비중이 작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후 베측 정부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증대 및 환경기금 설립 등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함.

- 또한, 베측은 환경보호측면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환경산업의 증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국과의 환경기술에 대한 지원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우리 대표는 지난 11월 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베측에 동건 관련 설명을 직접하는 등 양국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동건 발생관련 베측을 비롯한 관련국가와 상세한 정보교환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임을 설명

4.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반부패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함으로써 그간 공여국들이 민간차원의 경제활동 및 ODA의 효과적 집

행의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해 온 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 아울러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2006-2010년간 2단계 공공행정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나갈 것임을 밝힘.

나. 주요 토의내용

- 대다수 공여국들은 부패 척결을 위한 베정부의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지방정부의 지나친 관료주의(red tape), 상-하위 기관간 서로 다른 법률 해석,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함.
- 아울러, 캐나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향후 베트남의 성패는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있음을 강조하고, 인권 보호,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을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베측의 노력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5.국제적·지역적 통합

가. 베측 설명요지

- 베측은 지난 11월 11년에 걸친 협상끝에 150

번째 WTO 가입국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WTO 가입 공약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WTO 가입공약 이행을 위한 기술적 원조 프로그램을 영국과 호주의 지원하에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함.

- 아울러 지난 11.12-19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을 통해 투자 및 무역 자유화 촉진을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APEC은 회원국간 경제적 기술적 협력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약속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소개함.

나. 주요 토의내용

-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WTO 가입 및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축하하는 한편, 이번 WTO 가입은 베트남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또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IMF를 비롯 많은 참가자들은 WTO 가입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조정능력 강화, 그간 보호무역의 혜택을 누리던 산업영역의 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 개선, 공기업 민영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WTO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 아울러 국제 NGO는 WTO 가입으로 인해 일부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WTO 가입공약 이행에 있어서 베정부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언급함.

- 우리측은 2006년도에 베트남의 WTO가입 및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베트남의 WTO 가입관련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적극 개입, 지지하였음을 강조함.

-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부산 APEC 개최이후 SOM의장실 및 준비기획단의 방배를 통해 경험을 전수하였으며 또한 경호 측면에서의 물적지원과 합동교육 등을 실시하여 2006 하노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언급함.

- 한편, 금년도 APEC 개최시 작년도 Busan Roadmap의 이행을 위한 Hanoi Action Plan의 채택과 관련하여 베측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금번 회의시 주요 성과물 중의 하나인 Stand-Alone Statement on WTO DDA의 채택을 주도하였다고 설명

- 한편, APEC 계기 한·베 정상회담시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규모(3,500만불)인 베트남 중부지역 병원건립사업에 대한 시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베측의 협조를 당부

6. 원조의 조화, 집행, 효율성 제고

가. 배측 설명요지

- 배측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ODA 동원, 관리,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여국들의 ODA 지원공약대비 집행비율도 개선되고 있음을 소개함.
- 정책 측면에서 MPI는 사회경제개발5개년 계획(2006-2010)의 이행을 실현할 ODA 재원동원의 기초가 될 「2006-2010 ODA 전략프레임워크」를 작성하여 총리실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 법률·제도 측면에서는 Decree 131을 발표하여 ODA 관리 및 활용 관련 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위한 권한의 이양, 절차간소화 및 원조조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제고,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
- 특정 보고서 형식 및 체계, 조달절차 등에서 공여국(기관)과의 조화를 달성하고, 웹사이트(<http://dad.mpi.gov.vn>)를 통해 50개국 이상의 공여국간 개발원조데이터베이스(DAD)를 공유하는 등 원조조화를 위한 지속적 활동 수행 및 그에 따른 성과를 거양
- 지난 3년간 공여국, 국제NGO, 베트남 정

부기간이 폭넓게 참여한 원조효과 관련 파트너십 그룹(PGAE)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ODA 효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Hanoi Core Statement를 채택하고 이행함으로써 베트남을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한 국가로 만듦

- 그러나 상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
- ODA 관리 및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법률간 일관성 미흡
- line ministries와 정부의 오너십 부족으로 질 낮은 사업계획서 작성
- 부적절한 원조제공방식의 선정으로 인한 자국내 재원조달 어려움 등 사업 준비 및 승인 지연
- 부지정리, 토지보상, 재정착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등
- 2006년도의 ODA 동원 및 활용 평가결과를 기초로 2007년도에는 다음 조치내용을 중점적으로 이행 예정임.
- Decree 131과 관련한 사업추진반(PMU)의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이행지침 마련, 2006-2010 ODA 전략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하노이핵심성명의 이행계획 수립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보고,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 수립
- 공여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조절차의 조화과정을 가속화
- 모든 수준에서의 ODA 관리 및 이행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등

나. 주요 토의내용

- 대다수의 공여국 및 국제NGO들은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범적인 수원태세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원조효과 관련 파리선언을 현지화한 Hanoi Core Statement(HCS)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행노력과 금번 Decree 131 제정을 크게 환영함.
- 한편, Decree 131의 성공적인 이행 및 원조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line ministries와 지방(성) 정부 및 집행기관의 능력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승인, 국제협정 체결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노력과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업관계자들의 의식변화도 긴요함을 설명함.
- 스웨덴, 캐나다, EC, 호주 등은 원조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여국의 원조절차 및 방식을 베트남 정부의 절차와 시스템에 조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의 감소 노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함.

- ADB, UN 등은 원조비용에 대한 기준(cost norm) 관련, 사업지연시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서의 원조비용의 차이 발생, 시장가격과의 차이(gap)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
- 한편, 일본은 2008년 JICA와 JBIC의 통합을 통해 유·무상사업간 시너지 효과 및 원조효과 제고 계획을 설명함.

7. 각국 및 국제기구의 2007년 대 베트남 지원약속

- 2007년도 대 베트남 지원서약(pledge) 총액은 44.5억불로 전년 약속액(37.5억불) 대비 약 7억불 증가함.
- 일본(8.9억불), 프랑스(3.7억불), 한국(1.1억불)등이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그 외 ADB(11.4억불), WB(8.9억불), UN 기구(0.7억불), NGO(1.8억불) 등 국제기구/단체도 지속적인 대 베트남 지원을 서약
- 우리 대표는 한국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SEDP와 연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개혁 및 금융제도 개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을 평가하고, 2007년에는 약 1.1억불의 유·
무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임을 소개함.

[자료: 주베트남대사관]